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김 일 환



대선이 끝나고 이를 후 서울로 체널A 방송 토론을 가는 필자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 상태였기 때문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다.

이미 떠나기 전부터 광주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 탓에 숨조차 내쉴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 방송을 해야하는 의무가 어찌나 월망스럽던지...

침울하자면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는 체널A와 함께 뉴스와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어쨌거나 필자는 방송을 해야하고, 지역의 민심을 전해야 했기에 쓰다듬 마음으로 토론에 입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의 주제는 '대선 뒷담화-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종편 출연은 죄악인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새누리당을 출입하는 체널A 정치부 반장, 부산일보 방송팀장, 그리고 필자가 대선을 두고 그동안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필자에게도 지역 민심의 선택은 무거운

## 프레임의 족쇄를 끊어내라

자기 시작으로 풀어내려 갔다.

마지막 박근혜 당선인에게 호남의 눈물을 씻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방송은 끝없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앵커의 마지막 질문이 필자를 당황하게 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들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민주당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한순간 말을 잊지 못한 필자의 대답은 "글쎄요." 앵커는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는 듯 클로징 멘트를 했고, 필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방송작가들

과 뒤풀이 자리에서 밝혀졌다.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인사들에게 출연 요청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특히 캠프 인사들에게는 대선 초반 종편 출연 금지령까지 있었다고 한다. 의문은 풀렸지만 찜찜한 마음은 털어내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대선 기간을 통해 방송가에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중에 '종편 역할론'이 회자하고 있다. 수도권의 40, 50대를 정치적 이슈에 빼놓지 않고 학습시킨 것이 종편이라는 것이다.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대선 특집을 꾸릴 정도였으니.., 이리 틀어도 저리 틀어도 대선 일색.

했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는 가정법이 없다고 한다지만 민주당이 종편을 열심히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필자가 대선 기간 광주 전남지역의 민심을 전할 때 전국 분단 시청률이 그래프가 2% 넘게 경쟁 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소통하는 정당으로

문재인 후보는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소통일 수는 없을 텐데,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은 더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야기할 때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프레임은 집단을 굳건히 해주는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생각과 행동을 옥죄는 굴레다. 또 자가당착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필자가 종편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다. 프레임의 족쇄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선 안 되겠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깊고 넘어가 보자는 것이다.

안팎으로 소통하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

〈방송보도부장〉

## 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시련과 역경의 길뿐이다.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마저 새누리당에 내주면서 적어도 차기 총선이 실시되는 2016년까지 3년4개월간은 마이너리티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범야권 종편 혹은 진보의 재구성 논란 속에 구심점을 잃고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경제성과 신뢰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기우나가는 내부 정비에 나서야 한다. 거기엔 전국 정당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원내인 후보에게 물표를 준 호남민들로선 대선 패배의 상실감에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자중지간에 분노마저 치민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에 갈등을 보일 때인가. 그야말로 참회의 심정으로 정치 쇄신과 선진화를 모색해도 '이제서야'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 민주당 당권 놓고 계파간 갈등이라니

‘지역 예산 확보’가 국민대통합 첫 걸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막바지 예산 따내기에 돌입했다.

광주시의 경우 25일 강운태 광주시장 등 간부와 예산 담당 직원 등 10여 명이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시는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용역비 50억 원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160억 원 ▲5·18 아카이브 구축 132억 원 등 26개 사업 1조 579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남도 역시 지난 23일부터 정순남 경제부지사와 예산 관련 공무원을 국회로 급파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예산 중 삽감액이 과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을 지역 안내로 나눠줄 것으로 보고,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확보해온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현안사업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 여파로 예산 심의가 늦춰져 일정이 빠듯하고, 통상 지역예산으로 배정됐던 정부예산 삭감에도 적어 자자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예산은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발전을 내걸었던 대선공약이 헛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다.

## 無 等 鼓

‘민중은 무슨 일이든 갈피밖에 알지 못하며, 비논리와 모순에 넘어가기 쉽다. 그런 민중을 상대로 이성적인 도움말이나 설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양파한 감정과 미신, 습관과 전통 그리고 감성적인 주장에 동조하기 쉽고, 당파근성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 당파근성은 아무리 논리적인 합의라 하더라도 부숴버린다.’

‘도덕에 제약받는 정치가는 정치가로서는 실격이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정치가는 모름지기 모략과 위선을 써야 한다. 민중에게 미덕이 되는 성실과 솔직함은 정치에서는 오히려 죄악이다. 그런 덕목은 가장 강력한 정직보다도 한층 확실하게 정권을 뒤집어 엎기 때문이다.’

유대의 ‘잃어버린 10지파’ 장로들이 세계 지배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했다고 하는 ‘시온 장로 의정서(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의정서가 실제로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는지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문서의 내용이 우리의 정치 현실과 몹시도 비슷하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올 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여·야 국민에 대한 이성적인 설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모략과 음해를 비롯한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집중했다는 점이나, 국익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파주의에 편승해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표를 행사한 국민도 각 후보의 정책과 내용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배경과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더 많은 점수를 줬다는 점 역시 의정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다. 이쯤 되면 세계 정복을 꿈꾸는 유대의 장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여야 전략가들이 비밀리에 작성했다고 해도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109년 전 출판된 ‘시온 장로 의정서’가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은 비극이다.

/총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 온펜칼럼



이 병 우

## 광주 에너지와 문화수도

로 달려가게 했다. 문재인 후보는 “광주, 호남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지지를 해주셨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호남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광주를 보는 시각도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 “광주야 미안해”라며 “광주의 ‘5월’을 안다면 투표율과 득표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 후보의 92% 지지율은 경악 그 자체”라며 비난한 사람도 다수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광주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어떤 지역민이 90%의 힘을 결집할 수 있겠는가? 광주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 부문에서 발휘한다면 긍상첨화이다. 광주는 문화수도를 표방한 지 오래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가 과연 문화수도의 역할을 갖추고

있을까? 많은 지자체가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문화를 소재로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주는 ‘역사 문화 도시’, 전주는 ‘전통문화 도시’, 부여 광주는 ‘역사 문화 도시’를 내걸고 있다. 그동안 ‘산업 수도’를 추구했던 울산시도 문화 부문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복지 문화 도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광주의 현재 도시 슬로건은 “행복한 창조 도시”이다.

광주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현대 경제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7대 도시 중 광주의 브랜드 가치는 4조 580억 원으로 7대 도시 중 최하위이다. 광주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외부인들은 광주의 가장 큰 단점을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보고 있다.

〈광주대 저율 융복합전공학부 교수〉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기고



## 대학 학과 선택, 취업 양과 질이 우선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대가 아닌 일반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4.8%에 달했다. 이런 반응은 남학생(59.1%)보다 여학생(70.4%)에서, 서울권 대학생(54.3%)보다 지방권 대학생(69.2%)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진학을 후회한 이유가 취업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대학 정원보다 대학진학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대학 진학은 과거에 비해 더 용이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용이함 속에서 가장 고민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졸업 후의 진로 즉, 취업이다. 하지만, 단순한 취업률의 수치만이 아닌 ‘취업처의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한 대학과 학과로 눈을 돌리는 4년제 대학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 학과이자 취업 연계율이 높은 학과를 예로 들겠다. 우리 지역의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옛 지적과)는 우리나라 국토 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 개설된 국토 학과로서, 1978년 개설 이래 지적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기술 인력

496명을 배출하고 있어, 대학과 학과선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학과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희망진로에 맞춘 엄격한 학사관리, 1인 4자제 취득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강, 국공채대비 특별한 운행, 유비워터스 환경에 맞춘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등을 브랜드 전략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전국지적재조사사업(2030년까지 진행)의 시행으로 자격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의 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취업 전망이 타 학과에 비해 밝을 수밖에 없다.

대학 학과 선택은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나 선호하는 날보기 좋은 학과는 그만큼 취업도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과는 반드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희소성이 높고,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학과를 그만족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취업의 양과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2년제 대학과 학과로 눈을 돌리는 4년제 대학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 학과이자 취업 연계율이 높은 학과를 예로 들겠다. 우리 지역의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옛 지적과)는 우리나라 국토 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 개설된 국토 학과로서, 1978년 개설 이래 지적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기술 인력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바쁜 먹거리 정직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개인을 금치 못하겠다.

하루빨리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 울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이번 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대책, 그리고 보고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민은 거의 매일 달걀을 한 개 이상 먹고 있지 않은가.

▲김은형·광주 남구 봉선동

## 신선도 떨어뜨리는 달걀 세척 의무화 재고해야

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같이 달걀을 날로 먹는 곳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고 방송은 덧붙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물세척을 금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물과 소독제로 세척한 달걀이 더 깨끗할 것 같다고 생각해 왔는데 방송을 보자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등급을 판정하는 검사원 관계자들도 필자와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바쁜 먹거리 정직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개인을 금치 못하겠다.

하루빨리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 울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이번 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대책, 그리고 보고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민은 거의 매일 달걀을 한 개 이상 먹고 있지 않은가.

▲김은형·광주 남구 봉선동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div